<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조유형 전)삼광유리 노조지부장 현)마을관리소협동조합. 맑은내마을협동조합이사장		
면담자	표기자	면담지원자	이혜숙. 박인옥 멘토
면담일시	2026. 14.00~16:20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녹취문 작성자	표기자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참여자 소개 (00:00:05~00:01:28)

면담자: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조유형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6년 8월 7일 금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입니다. 면담 진행은 표기자가 하겠습니다.

구술자: 반갑습니다.

면담자: 안녕하세요.

구술자: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면담자: 네 소개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뵀을 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구술자: 네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2. 태생과 입사 (00:01:29~00:10:40))

면담자: 먼저 생년월일하고 고향하고 가족 관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1958년생이고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딸 둘이 있습니다. 다 출가했고요.

면담자: 네 고향은 어디세요?

구술자: 고향은 부평입니다. 남들이 왜 인천이 아니냐고 군대 때부터 얘기를 들어서 군대 때부터 맞았어요. 왜 왜 인천인데 부평이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부평이면 부평이니까 예전에는 그게 약간의 역사적 유래가 좀 있어요. 부평은 부평 도호부가 더 커서.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부평입니다. 원통이 고개를 택시가 안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천 원 더 냈죠.

면담자: 그러면 학교도 다 그 주변에서 다니셨어요?

구술자: 예 부평서초등학교, 부평동중, 인천고등학교.

면담자: 인천고등학교는 좀 거리가 있네요.

구술자: 마지막 시험보고 들어가서

면담자: 네 마지막으로 실력을 인정받으셨군요. 그러면 선생님은 몇 남매 중에 몇 째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제가 제일 위죠. 아들 하나 밑에 여동생 둘. 얘기 듣기로는 저보다 두 살 많은 누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일찍 죽어서

면담자: 네 베이비 부머 시대에 맏아들이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구술자: 드럽게 많아가지고

면담자: 58년 지난번에도 58년? 맞다 맞다 저가 57년으로 순간 착각을 했어요.

58년 그 유명한 띠.

구술자: 닭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면담자: 58년 개띠 유명한.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삼광 유리에 입사하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군대 제대하고 대부분 한 3개월은 놀아요. 그때 당시에는 군대 제대 3개월 정도

참석자 4: 군대 길었죠

면담자: 36개월이에요.

구술자: 그러니까 제대하고 놀고 있는데 여동생 친구가 삼광유리 근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빠 놀면 뭐 해. 심심한데 그냥 나와서 알바나 좀 해.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게 들어간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근데 다른 부서로 가면 금세 못 나오니까 포장과로.

면담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사를 하면 금방 못 나오니까

구술자: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입사냐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이직률이 많고 하니까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뭐 그냥 별로 이게 면접은 나중에 봤어요.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부서를 옮기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면접을 보고 그전에는 그냥 포장과 가서 봤더니 거기서 일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포장과에서 근무한 내용이 서울 우유병을 담는 일이었어요.

면담자: 빨간색 글씨로 쓰여진.

구술자: 예 그거를 했어요.

면담자: 거기로 납품하는 그 유리병을 포장하는 일

구술자: 그렇죠 그렇죠

면담자: 몇 년도에 들어가서

구술자: 83년도 제가 2월달 정도에 제대했으니까

참석자 4: 5월에 입사하셨겠네요. 5월 6월

구술자: 3개월 이전에 들어간 거니까 정확하게 몇 월 달은 기억 안 나요

면담자: 그럼 대학 졸업하고 제대하고. 그 시절에는 직장 잡는 거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면 그냥 아르바이트나 해볼까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오래 다닐 생각도 안 했고
면담자: 왜요?
구술자: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런 회사를 일단 몰랐으니까.
면담자: 그러니까 앞뒤 안 알아보고.
구술자: 어차피 한 한두 달 정도 일하고 그냥 다른 데 들어가야지. 그리고 저는 기계과를 나왔으니까 뭐 어디 어디 들어갈 데 없겠어. 그냥 용돈이나 좀 벌다가 그 돈으로 일단 술이나 좀 먹고 그러다가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다 뭐 그 정도 생각. 그렇게 된 거죠.
참석자 4: 그당시에는 어디 일을 잡아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입사하기 쉬울 정도로 일자리가 많았나요? 인천에
구술자: 특별하게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삼광유리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근무 조건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따지면 물론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게 여기저기 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막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면담자: 혜숙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할 때 옆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좀 헷갈려. 그러니까 메모했다가 나중에 하거나
참가자 4: 아 네
면담자: 첫 출근할 때 학익동의 그 주변 모습이라든가 삼광유리 공장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구술자: 여튼 일단 사람이 많았어요. 라인에 왜냐하면 일단 공장 안에는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판유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판 유리하고 병 유리가 이제 틀려요. 구조가 틀려요.
면담자: 판 유리는
구술자: 옛날 한국 유리 판 유리는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고 그래서 유리가 좀 나오면 기계를 잘라야 되고 그걸 컨베아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 라인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공정이고 근데 이제 병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간단히 얘기해 보시기에 콜라병 콜라병이 이제 한 기계당 하루에 한 20만 개가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게 이게 기계가 돌아가면서 계속 빼내고 빼내고 계속 유리물이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기계당 20만 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계들이 보통 4대 5대 그 정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한 한 하루에 한 12만 개 12만 개 정도 되겠다.
면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구술자: 예 그렇죠 이제 그 병이 제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콜라병 칠성사이다병 그리고 그 화장품 샘플병 요만한 샘플 병 그런 거까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화로 어떻게 선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화로 선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판유리와 이런 유리병은 기본적인 설비 용광로는 같지만 모래를 녹여서 유리문을 만드는 용광로까지는 같지만 기계 라인부터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면담자: 그러니까 삼광은 판유리가 아니었었던거죠.

구술자: 예 상광 유리는 병유리이고 그래서 노동 집약적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인원이 700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면담자: 공장에만 노동 현장에만 700여 명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700여 명이 굉장히 크네요

3. 삼광유리 공장 내 모습 (00:10:41~00:33:48)

구술자: 그러면 그 제조에서 병이 나오면 이제 일일이 사람 눈으로 검사를 해요.

면담자: 그 당시에는 자동화가 아니고.

구술자: 네 콘베아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형광등하고 이게 막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눈으로 그걸 이제 금을 찾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면담자: 이제 그 공정 과정은 조금 이따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도 유리병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주력 제품은 뭐였었어요?

구술자: 주로 병이죠. 병이고 화장품 병도 이제 종류가 좀 있죠.

코스트가 좋은 거는 화장품 병이고.

면담자: 맞아.

구술자: 화장품 병 일단 단가가 좋고

면담자: 혹시 어느 화장품으로 납품하셨어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 이자녹스 이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몇 개

면담자: 네네. 그럼 인쇄까지 다.

구술자: 인쇄까지 다 있죠.

면담자: 그럼 회사별로 인쇄도 다 다르고

구술자: 그때 당시에는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사장으로 쪼개죠.

면담자: 그 당시에는 글라스락 안 나올 때죠. 근데 들어가시면서 사람도 많았고 그런 공정을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재밌겠다 아니면은 뭐 일을 해야 되겠다

구술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금세 그만둘 거니까

면담자: 진짜 마음 편케 그냥

구술자: 사람 많네. 아주 무지하게 시끄럽네. 병 만드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시끄럽네. 저 안에 있는 놈들 더럽게 덥고 고생하겠네. 그 정도.
면담자: 그러면 다니시면서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셨어요? 정식으로 들어가실 곳.
구술자: 3교대 사업장이었어요.
면담자: 네. 제조업이 보통 3교대죠.
구술자: 3교대의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이면은 다른 데를 못 알아봐요. 그건 저도 나중에 하던 얘기 나중에 느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시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백수인가 봐 그래요. 왜냐하면 새벽 반은 7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 그럼 낮에 빈둥빈둥빈둥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 반은 3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 오전에는 왔다리 갔다리 야간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그렇게 일주일마다 교대 근무를 하니까 멍해져요.
면담자: 그러셨겠네요. 시간 활용하기가 쉽지 않죠.
구술자: 그 얘기를 저희 딸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제 딸도 부천에 옛날 아남전자 아남 전자 학교에서 이제 특화로 거기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3교대 사업장이라 그래서 막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얘기를 해줬죠. 이만저만 이렇게 이렇게 쭉 아빠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주기가 1년 3년 5년이다. 그걸 버텨라 그래서 현재 장기 근속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면담자: 따님이 그럼 지금도 다니세요
구술자: 예
면담자: 그럼 얼마나
구술자: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벌써 이제 10년 넘었죠.
면담자: 고등학교 졸업 그렇게
구술자: 신랑도 같이 다니고
면담자: 이제 공정 과정이 궁금한데요. 좀 간략하게 유리병이 나오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구술자: 아 네 일단은. 용광로에 들어갈 수 있는 원료를 배합을 하죠. 그 배합을 하는데 이제 그 배합의 가장 주된 거는 모래입니다.
면담자: 모래하고
구술자: 모래하고 그다음에 유리 일부를 넣어야 돼요.
면담자: 그 유리가 재활용
구술자: 유리 예 그렇죠 재활용 그거 한 10% 정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넣어야지 강도가 좀 병의 강도가 좀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화합물 정도

면담자: 소다회

구술자: 예. 그렇죠

면담자: 소다회 그럼 소다회는 동양화학에서 갖다 썼겠네요.

구술자: 그래서 용광로에서 유리 물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계에다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 물이 여기 있으면 막 이렇게 라인으로 보내는 거죠. 착착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계속 받아가지고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병이 만들면 곧바로 그 병이 곧바로 나가면 터져요. 왜냐하면 스트레인[1] 때문에 병이 가지고 있는 팽창력이 다 틀려서 이 두께가 있고 그래서 스트레인 때문에 서냉로를 통과하게 돼요. 서냉로 그러면 서냉로에서 한 천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그다음에 서서히 식히는 거지. 그 서냉로 통과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면담자: 그럼 물에서 시켜요.

구술자: 아니죠. 그냥 온도. 가스로 온도를 천 몇 백도 올렸다가 이제 천천히.

면담자: 그 콘베이어 거기에서 순환 그러면 서냉하는 구간은 따로 있겠네요. 그러면 평소에 공장의 실내 온도보다 서냉하는 그 구간은 따로 온도 설정을 해요.

그거 다 따로따로 그렇게 되어 있어.

구술자: 네 그거는 또 이제 저 뭐야 기계는 가스 가스로 해서 가스로 해서 온도를 올리죠. 각 한 라인마다 서냉로의 폭이 지금 계신 데부터 이 정도 그 정도 세척이 이 정도 길이는 길이는 대충 한 50m 50m 40m 50m 됐어. 그 정도 그래서 천천히 나오면 거기서 이제 콘베아를 타고 검사기로 가죠. 검사를 검사 가면 이제 그 아가씨들이 쭉 앉아가지고 하고 검사하고 불량 빼내고

면담자: 눈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기계가 체크를 못했다는 거죠.

구술자: 저도 잘 됩니다. 눈으로. 그러면 제조기하고 이제 막 분량이 나오면, 제조과에서 이제 왜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와? 검사과에서는, 불량이 나왔으니까 이 불량이지. 그래서 막 티각티각하다가 결혼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과하고 검사과하고.

면담자: 싸우다가 정이 들어

구술자: 제조과하고 검사과하고 결혼을 아주 많이 해요.

면담자: 아 그래요

구술자: 그럼 좀 봐줘. 그러면 끝나고 술 한잔 살게 이러면서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면담자: 그럼 주로 검사과는 여자

구술자: 여자분들이 많고요.

면담자: 더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그런가

---

1) 용융 유리가 성형된 위 아직 충분히 식기 전 유리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뒤틀리는 힘/변형'

구술자: 아무래도

면담자: 그리고 덜 힘들고

구술자: 집중력이 집중력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면담자: 집중 노동력이 그렇게 세지 않고

구술자: 네 그렇죠 예 예.

면담자: 그럼 이 공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어디쯤

구술자: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제조죠. 제조 제조과

면담자: 제조 유리 그러니까 성형하는 제형

구술자: 이렇게 병을 만드는.

참석자 6: 병을 찍어내는 것

면담자: 힘들지 않아요? 그거 깎아야 되잖아요? 재형을 하려면 그 모양을 만들려면 그거는 이제 깎고 그러지 않아요?

구술자: 그러니까요. 그거 깎는 부서도 따로 있죠.

면담자: 그러니까

구술자: 깎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면담자: 그러니까 성형할 때

구술자: 병을 만들면

면담자: 아니 깎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성형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제 나왔어요 용해를 해서 다음에 식혀서 제형할 때 깎는거.

구술자: 병을 찍는 가다가 있어요.

면담자: 네 있겠죠 틀이 있는 거

구술자: 돌리는 거죠. 그럼 기계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면담자: 그럼 그 안에 이제 유리 그 안에 유리 용해가 딱 덜어지면 그렇게 딱

구술자: 이렇게 되는 거죠.

면담자: 수작업으로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구술자: 수작업하는 건 거의 없죠.

면담자: 유리를 못 만지지

참석자 4: 너무 뜨겁고 그래서

면담자: 아니 다 식은 다음에.

구술자: 이제 그 유리물이 떨어지면 기계로 이렇게 물이 기계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뚝 떨어지면 딱 잡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뚝딱 뚝뚝 벌어지면서 이게 타고 나가 콘베어를 타고 나가 계속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하나로 쭉 몰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제 제조과가 작업 공정상 가장 힘들어요.

면담자: 특히 용해할 때 그 용광로라고 해야 되나 그 용해로 거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구술자: 뜨거운데 그거 뜨거운 거를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면담자: 그 주변에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구술자: 근데 거기서는 용해로에 사람이 있지만 용해로에서 근무자가 하는 일은
용해로는 어차피 기계 시스템으로 온도를 체크를 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덥긴 덥죠. 용해로니까 물론 보완을 한다.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면담자: 그럼 작업장의 최고 온도는 보통 어느 정도였어요
구술자: 제조과 같은 경우 한여름에는 보통 한 60도
면담자: 실내 온도가요? 네 그럼 냉방 장치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거 했는데도 60도예요?
구술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계 앞에다가 에어컨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기계면 작업장은 이제 작업 제조과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기계 성형에 성형에 성형 틀에 기름을 칠해줘야 돼.
벌어졌을 때 벌어졌을 때 기름을 우리가 음식 할 때 참기름 칠해주듯이 기름을 칠해 줘야지 그다음에 또 성형물이 들어왔을 때 잘 쪄지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기계 근처를 가야 돼.
그게 가장 힘들죠. 덥고 시끄럽고 그래서 소음성 난청에 가장 많이 전에는 저희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소음성 난청에 대한 그런 경각심은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좀 지나서 좀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소음성 난청이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면담자: 그럼 안전 장치를 좀 어떻게 보완을 했어요?
구술자: 보완에 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손수 상태는 나아지지가 않고 그 상태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또 덥고 그러니까 다른 보호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귀마개 정도
면담자: 귀마개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공장 현장은 어때요?
구술자: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면담자: 대안이 없는가 봐요.
구술자: 그러니까 60도에서 다만 이제 다만 이제 거기 머무르는 시간을 좀 짧게 하든지 인원을 좀 더 투입하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면담자: 기름칠 하는 거를 사람이 그 작업을 전담해서 해요? 아니면은 순환?
구술자: 전담해서 해요.
면담자: 그럼 그분은 수당을 좀 더 주나요?
구술자: 맞죠. 그래서 임금 협상 때 임금 협상 때 항상 그 부분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야 니네만 더 받아? 우리 니네가 아무리 잘 해봐야 우리 검사과에서 뭐 하면 뭐 할

텐데. 그럼 검사과 너희들만 그래? 그러면 우리 포장과는 뭐야.

면담자: 이런 식으로 그런 갈등 때문에.

구술자: 약간의 부서 간에 부서 간의 이견이 있어요. 이견.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건 그래도 제조과가 힘드니까 좀 더 더 줘야 되는 건.

면담자: 그래서 그렇게 수당이 더 붙었던 거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안에서 안전 장치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아까 뭐 귀마개라든가 그런 보호 장치는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됐나요?

구술자: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면담자: 네네네. 산업 안전 기준에 대해 몰라서.

구술자: 그런 것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면담자: 80년대 중후반인데?

구술자: 예 제가 들어간 게 그때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일들이라.

면담자: 그때까지도 그 당시에도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안에 그 산업안전 기준이 바뀌어서 많이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혹시 아세요?

구술자: 요즘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가 80 제가 98년도 그만두고 공장을 95년도 사람을 만나지만 공장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아마 주종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글라스락으로 바뀌면서 이제 MDP[2] 그릇 만드는 기계 MDP 기계로 바뀌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공장이 다 이제 논산으로 내려가 있어서

면담자: 그러면은 MDP로 바꾸면서 그러면 노동자들은 일의 강도가 좀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거가 좀 덜해졌나요?

구술자: MDP를 MDP를 바꾸는 거는 전략이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의 기존 병들에 대한 수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강화 강화 유리로 일단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라스락이 만들어진 거죠.

면담자: 그러면 그렇게 품질도 향상되고 생산도 이제 더 많아졌으면 따라서 자동적으로 근로자들도 노동자들도 급여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많아졌겠죠.

구술자: 지금은 동양화학 더군다나 94년 94년도 94년도에 동양화학으로 합병이 되면서 되면서 급여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화학이 이렇게 돈을 아주 작게 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면담자: 네 맞아요. 여러 분의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구술자: 예 예 그래 아주 많이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처지게 주지 않는

---

2) MDP(Main Distribution Panel): 주배전반을 뜻한다. 공장이나 자동화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각 설비로 전기를 분배하는 핵심 전기반이다. 자동차 설비 전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주배전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금액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면담자: 네 이제 그 공장 안에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 강도 높은 일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 많은가요?
구술자: 많죠. 네.
면담자: 어느 정도요
구술자: 이게 제조과는 퇴직자가 별로 없어요.
면담자: 오히려 제조과가 많을 것 같은데.
구술자: 왜냐하면 제조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봐야 유리 회사 들어가니까 나가봐야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만 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면담자: 그렇게 되어지는가 보죠?
구술자: 그렇죠. 근데 대신 이제 검사과라든가 포장과는 아무나 와도 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죠.
면담자: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반대네요. 네. 저는 힘들어 제조과에서 이직률이 높을 것 같은데.
구술자: 아니 안 그래요. 예. 제조과는 한 번 들어가면 자리가 안 나와요.
면담자: 그렇게 어려운 일 하면서 내공도 쌓여지는가 봐요.
구술자: 내 글쎄 내 내공이라면 내공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삼광유리가 다른 데 만약에 저희가 그 주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으면 약간의 판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 그 삼광유리라고 하는 데가 다 허허벌판이잖아요. 그 옆에 뭐야 유니드 유니드가 있었고 그 외 정비 단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동양화 앞에 몽블랑인가 뭔가 뭐 하나 또 하나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지만. 옛날 대우전자 옆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쪽에 주안공단이나 다른 공단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이라든가 이러한 큰 조류 큰 흐름하고는 이제 별개로 있었죠.
면담자: 공단에 있었으면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구술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일찍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든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투쟁에 투쟁을 할 때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눈이 떴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교대 사업장에다가 따로 이제 떨어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면담자: 그러면은 동양화학 주변에 계열사들도 유니드도 있었고 몇 개 삼양사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열사도 계열사 하고끼리의 그런 연대 이런거는?
구술자: 네 없어요. 없었어요.
면담자: 누군가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도 않았나요? 아니면은 안 하는 분위기였었나요?

동양화학 내에서는 굉장히 단지가 크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안 하는 분위기 못하는. 이쪽에 유니드라든가 이쪽에 몇 개 회사도 거기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
면담자: 같은 시기에요? 삼광유리하고?
구술자: 삼광유리만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양화학하고 별개죠.
면담자: 94년 이전에는.
구술자: 유니드라든가 다른 회사는 거의 다 자동화로 돼 있는데 상광 유리만 뭐야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쟤는 동양화학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면담자: 계열사가 아니었으니까
구술자: 그렇죠. 네 관심 없죠.
면담자: 선생님 일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구술자: 관심 없는데 이제 그때 한 번 유니드에서 한 번 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활동하실 때인데 거기서 이제 위원장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앞에 가서 데모하고 거기 유니드 앞에서 네 그 정도
면담자: 그 정도의 연대
구술자: 예예예. 그리고 이제 연대도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서 거기 앞에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그대로 있고 우리만 나와서 거기서 얘기하고 그리고 항의 한 번 하고 그러고 올 정도
면담자: 그러면은 거기 유니드라고 하셨죠. 네. 유니드에서 요청을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그럼 선생님이
구술자: 유니드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피해는 우리가 본 거죠. 바로 바로 옆에 가스가 누출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근데 군산에도 또 똑같은 TDI 공장이 있었어요. 네 유니드랑 똑같은 TDI 공장 거기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돼서 제가 군산 군산에 가려고 군산에 가려고 가서 걔네들 집회한다고 그러길래 동조 연설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겠다. 우리도 이런 똑같은 피해자 피해를 당해서 그래가지고 동양화학 애들이 저 잡으러 열나게 다녔죠. 못 가게 하려고
면담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보상을 받으셨어요?
구술자: 보상은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정도

4. 포장과- 품질관리- 공무과 부서 이동(00:33:49~00:42:50)

면담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바꿔서 선생님이 업무 이동을 하시잖아요.
포장과에서 품질 관리로 공무과로 이제 그 부분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포장과에 입사하시게 된 거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품질 관리로 그러니까 포장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다가

품질 관리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신 일 소개 좀

구술자: 한 두 달, 두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면담자: 그러면은 그냥 한번 알바나 해볼까 했는데 두 달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품질 관리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안 나오신 거 보면.

구술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면접을 봤어요.

면담자: 여기 삼광에서?

구술자: 예 예 예 예

면담자: 왜 면접을 하라 그래요? 정식으로?

구술자: 예 예 면접을 보러 정식으로 입사를 해라. 예 면접을 보라고 그래서 알겠다 하면 이제 이제 보러 갔죠. 네 갔더니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

면담자: 면접관이?

구술자: 예예예. 옛날에 한국 유리 공장장 하셨던 분이에요.그래서 예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가고 싶나 라고 얘기해서 정비과나 공무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구두는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글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죠.

면담자: 그러면은 품질 관리 QC라고 하는 그 자격이 있으셨어요?

구술자: 아니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격을 또 요구하지도 않았고

면담자: 품질 관리 부서에서 보통 QC 자격 가진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구술자: 한 반에 보통 6명 7명 정도. 3교대이니까 한 반에 6명 7명 정도가 이제 병이 나오면 랜덤 샘플링 해서 사무실 가서 이제 씨드검사[3]하고 아까 얘기한 스트레인 검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 걸고 그런 걸 하는 거지

면담자: 그러니까 그 자동화가 이제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육안으로 체크하셨겠네요

구술자: 그렇죠. 자동화를 했어도 자동화 검사에서는 스트레인이나 시드나 이런 것들은 못 잡아내요. 금만 잡아내요. 금하고 두께 병의 바닥에 보면 두께가 보통 일정하잖아요. 일정한데 어떤 거는 한쪽은 얇고 한쪽이 두꺼운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잡아내고 그리고 병에 살짝 금이 간 거 그런 것들만 잡아내는 거예요. 시드나 스트레인이나 기타 그런 것들은 못 잡아내요.

면담자: 그러면은 그 관리 부서에 품질 관리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어요?

구술자: 그래서 기사가 있었어.

면담자: 그러면은 그 기사들도 검사하는 거는 똑같아요. 선생님이 하신 그 검사하는 거랑 기사들 똑같은 방식으로?

---

3) 유리내부에 남아있는 작은 기포. 유리병 내부에 기포(씨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

구술자: 기사는 그냥 기사만 하는 거고 저희는 주로 이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선에서 이거 통과하면은 그냥 합격?
구술자: 불량 처리하고
면담자: 그게 마지막
구술자: 불량 처리하면 LOT 찾아서 전량 분량.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면담자: 전량이 불량된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계로 측정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다른 기업 이게 700명이면은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중견 기업 대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자동 설비화가 안 되어 있었다는거는.
구술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입사하고 한 5년 정도 뒤부터 자동화 설비가 서서히 들어오기
면담자: 입사하시고 5년 전부터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구술자: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동화 설비를 처음 들어온 게 팩커[4]라고 그래서 팩커 병이 쭉 모여 이면 집어서 박스에 옮기는 거야. 박스 박스로 옮기는 거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쪽에 경기도 이천인가 금복스토크라는 회사에 가서 저희 2명하고 거기 가서 직접 기계를 조립하고 테스트해보고 그걸 했죠.
그래서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검사 라인 자동화가 들어왔고
면담자: 컨베이어 전체가 다 자동화로 됐을 때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전량에 대한 검사는 좀 힘들었고 저기 뭐야 또 더군다나 그 화장품 샘플병 같은 거 이만한 거 그런 거는 자동화도 못 잡아내서
면담자: 80년대 후반이면 그 자동 설비화가 경쟁력이 된 시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 남편도 이제 QC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간간이 얘기 듣고 그런 기억으로는. 근데 삼광이 그런 설비가 뒤늦게 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안돼요.
구술자: 그러니까 이거 회사는, 회사는 이걸 판단하죠. 내가 이제 FA(Factory Automation. 공장자동화)를 하면 이게 나은가 아니면 사람을 사람을 붙여서 하는 게 나은가 자동화 설비가 나은가 이거 계산을 하죠. 무조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을 두 명을 투입해서 일 처리하는 게 현실적인 현실적이냐 아니면 길게 봐서 자동화를 할 것이냐 그러면 감가상각비 그러면 이 손익 분기점이 어디냐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면담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거로 결론이 났나 봐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자동 설비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할 때 이제 선생님이 가서 그러니까 일을 배워오시고 재미있으셨어요?.
구술자: 저는 기본적으로 기계를 만지고 조립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면담자: 전공도 기계
구술자: 기계 냄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쇠 냄새를 좋아해요.

---

4) 팩커의 집게(그립퍼)가 병을 한꺼번에 집어 옮기는 장치.

면담자: 아까 이제 그 불량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불량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지부장 하셨을 때. 품질 관리할 때는

구술자: 아니죠.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 할 때는 이제 그 일을 안 하죠.

면담자: 그러면은 그 지부장 하기 전에 공장 관리할 때 분량이 나오면은

구술자: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공무과

면담자: 공무과에서 일하실 때

구술자: 옮기고 나서 이제 위원장 한 거죠.

면담자: 그럼 그 불량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셨어요?

구술자: 글쎄요. 책임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불량이 많이 큰 로뜨[5]별로 분량이 대거 많이 나왔다. 반품이 났다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면담자: 기계를 잘 다루시고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안전하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5. 동양화학 계열사 삼광유리(00:42:51~00:52:27)

면담자: 그럼 삼광유리 회사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쭐게요. 제가 그 삼광유리 연혁을 지난번에 다 적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메모 보면 제가 다 순서대로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서 획기적으로 크게 변한 그런 거는 맨 처음에는 삼광 공업 을 인수를 한 거로 저도 이게 다 조사를 해서

구술자: 그건

면담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구술자: 예 이거는 아마 저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당산동에 있었던 당산동 맞네. 거기에 있었던 명칭인 것 같고요.

면담자: 그 자동 설비가 된 거가 그 연혁에서 알아본 바로는 81년에서 84년 선생님이 83년도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하셨으면 그때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MDP하고 MD 도입해서 그다음에 가장 획기적인 시기는 그거죠. 94년에 동양화학에서 인수를 한 거 그 배경 혹시 아세요?

구술자: 일단 삼광유리 사장이 이제 유리 회사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그래요. 유리 회사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동양화학이 왜 그때 당시에 누가

면담자: 그때 사장님이 누구

구술자: 김소웅인가 김소웅 사장이 동양화학 누가 친구, 학교 동기라든가 하여튼 친구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상광유리 안 할 거니까 니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삼광유리 싫으니까 니네 우리 거 좀 인수해 이렇게 해서 인수했다 합병했다 그런 얘기도

5) 로뜨(LOT): 일정한 조건으로 생산된 제품의 한 묶음.

들리고

면담자: 94년이면 선생님은 그 당시 잠깐 쉬실 때죠. 92년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구술자: 94년도니까 제가 해고 싸움 때 복직 싸움 할 때

면담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경은 자세히는 아무튼 그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구술자: 어차피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면담자: 네 네

구술자: 그니까 그런 설만 설만 들리는 거죠. 설만

면담자: 네네네 선생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유리 회사로는 굉장히 큰 그래도 아주 큰 회사였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당시에 그 경쟁 업체가 어디 있었나요?

구술자: 제일 큰 게 두산 유리죠. 두산 두산 유리 그리고 그다음에 진로 유리 진로 소주를 만드는 모 회사가 있으면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광유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는 없지만 롯데 칠성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독점 구조.

면담자: 지분을 가지고

구술자: 예 예 예 그래서 칠성사이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옛날에 나왔던, 병으로 나와 있던 델몬트, 이런 것들.

면담자: 되게 병이 이뻤었어요. 델몬트 병 되게 이뻤어요.

참석자 4: 병 맞아 맞아 거기에 뭐 다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주스를 만들었을 때 회사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얘를 사서 집에서

면담자: 다 재활용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참석자 4: 네. 그래서 회사가 잘 안 됐다고

구술자: 다른 걸로 또 쓰니까

참석자 4: 예 그래서 회사에서 투자 대비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

구술자: 그래서 제가 롯데칠성 담당이었으니까. 그러면 델몬트 병은 1년에 몇 번씩 프로모션이 걸려요

면담자: 어떻게 걸려요?

구술자: 어차피 이제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세트로 이렇게 선물하러 가

면담자: 많이 했죠.

구술자: 그럴 때는 뭐 그냥 하여튼 그냥 왕창 생산 미리 해놨다가 저는 맨날 출근했다가 다시 가는 길에 롯데칠성 구매과 가가지고 거기서 죽돌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구매과장 만나서 막 노가리 까고 그러다가 이번에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뭐 좀 그러면 그래요.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 한 100대 보낼까요? 아이 그러면 땡큐지 일 끝나면 술 한잔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효자. 왜냐하면 그게 그 유리는 중량물 대비 코스트가 높아요.

면담자: 지분도 많고 했으니까 롯데칠성에서는 어떻게

구술자: 거의 저희

면담자: 너희 얼마밖에 못 해줘 이런 거 절대 못했겠네요.

구술자: 그럼요.

면담자: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면 진짜 편하게 일하셨네요. 이보다 더 재미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같아

참석자4: 영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렇죠 회사제

면담자: 선생님 고상하게 표현 잘했다. 영업부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할 필요가

구술자: 근데 영업을 할 필요가 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걔네들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가끔씩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롯데 칠성 담당하면서 영업비를 거의 안 드리고 한 거죠. 만나서 끝나서 당구 치고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끝나면 끝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룸살롱 가서 술 먹고 무슨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어. 이리 와 얼로 와. 그리고 이제 저는 나이 먹고 이제 복직한 게 그걸로 갔으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튼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 사연은 사연이야. 그래서 끝나고 당구나 한게임 쳐. 당구에다 삼겹살 소주 한 잔 먹고 뭐

면담자: 사연 다 알 것 같은데요. 그 회사 내에서

구술자: 나 나중에 지나면 다 알긴

면담자: 선생님이 직접 얘기를 안 했어도 다 쫙 퍼졌을 것 같은데요. 누구 누구 온대 이런 거. 또 위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로 잘 나가다가 플라스틱이 또 굉장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플라스틱은 인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유리보다는 이제 지금은 또 좀 그거 커지긴 했는데 그때 플라스틱 수요가 엄청날 때 유리 산업이 좀 잠식이 된 때.

구술자: 맞춰서 또 그것도 생산을 해요. 유리만 한 게 아니고

면담자: 플라스틱도 했어요?

구술자: 네 네.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종이컵도 했고

면담자: 종이컵이오?

구술자: 종이컵도 했고

면담자: 그 유리 만드는 원료하고 다 비슷

구술자: 아니죠 틀리죠. 종이 예. 그리고 이제 종이컵은 삼광유리 내에 미광 산업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미광 산업이라고 이제 그런 데서 거기서 종이컵을 만들고 근데 페트병도 이제 페트병을 만들면 물류가 부피가 있어서 물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뻥튀기 뻥뻥뻥뻥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그랬죠.

면담자: 작업이 작업이 그렇게 돼요. 되게 재밌네요. 처음부터 그 큰 사이즈가 아니고.

구술자: 병을 크게 달려가면 차에 많이 못 싣잖아요. 이만한 거를 이만한 거를 차에 실으면 얼마 못 싣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 이제 기계를 갖게 되는 거죠. 어 여기 집어넣으면 뻥 뻥 뻥뻥 그렇게 만들어져요.

면담자: 재밌네요. 그런 건 또 처음 알았어요.

구술자: 그래서 아마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추세가 추세가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것들은 다 기획실에서 뭐 다 검토하고 하는 거니까.

면담자: 네네 IMF 때는? 그때는 이미 퇴직? 영업부에 계실때라서?

구술자: 아니 영업부에 97년도 7년도에 그만뒀죠.

면담자: 그 당시 선생님 일하실 때 삼광의 히트 상품은 그냥 음료병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거였겠네요.

구술자: 어느 거요?

면담자: 음료 음료수 병 히트 상품이. 그 당시에는 글라스락이 안 나왔을 때라서. 그 계열사들이 동양화학 단지 내에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열사들하고 서로 어떤 교류가 있었나요? 무슨 체육대회나

구술자: 나씽

면담자: 나씽. 전혀 그럼 그러니까 동양화학에서 그런 행사를 안 하나 봐요.

구술자: 그게 동양화학의 정서는 그렇게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면담자: 네.

6. 노동조합 활동 (00:52:28~01:10:51)

구술자: 그리고 시끄러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동양화학 노동조합을 보면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그만두면 일반 관리직으로 들어갑니다.

면담자: 관리직 잘 있으면 네 잘 있으면 노조로 잘 거기 있었으면 관리직으로 편하게

구술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 잘 그만두면 과장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러는 거죠.

면담자: 선생님도 그 해고 그 큰 일만 없었으면 계속 합병이 될 때까지 계셨으면은 지금쯤 아니 퇴직할 때 관리자로.

구술자: 그렇지 않죠. 저의 신념은 그만두면 다시 평조합원으로 간다 입니다. 저도 원래는 40에 하려고 그랬어요. 노동조합 일을 40살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지만 단일화 과정 각 부서에 짜장면집에서 모여서 포장과 검사과 대표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이 위원장 선거를 누가 나갈 거냐 누가 나가 니가 나가면 내가 보기에 100전 100패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해서 추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추대가 됐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걸 그 일을 한 40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가면 또 질 게 뻔한 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이긴 거죠.

면담자: 그러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구술자: 91년도 91년도니까 30대죠. 30대.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 출마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어차피 나가도 나갈 사람이니까 나가라

면담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네요.

구술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면에는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출마를 하게 된 것도 이제 70년대에 인천에 영어로 얘기하면 EYC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기독 청년협의회(에큐메니컬 유스 카운실). 제가 거기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인천에서 유명한 이민우 정세일 예 예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상문이도 같이 다 같이 활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 변형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역 활동이냐 아니면 노동 운동이냐 그런 여러 가지 도시 빈민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갈래길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 처음에 노동조합을 만들 때 저한테 왔을 때,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동인천에 화수동에 가면 도시 산업선교회가 있으니 거기서 누구 내 이름을 대고 누구를 찾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부를 만들었어요. 원래 본조는 이제 수원에 원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부를 만들었고 이제 지부가 된 거예요. 인천 공장이

면담자: 그때가 몇 년도쯤이에요?

구술자: 그때 그때가 아마 88년도인가 89년도였을 거예요.

면담자: 한창 노동자 대투쟁할 그때 그때 많이 만들어졌죠.

구술자: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노동자 위원장도 하긴 해야 될 건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는 아닌 것 같아 한 40 정도 짬밥도 좀 먹어야지 이게 이게 되는 거니까 젊은 나이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 질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나가는 거죠. 또 한쪽의 이면에는 회사가 자꾸, 우리 흔한 말로 술 한 잔 먹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벌면 뭐 다 이상한 데로 다 새 나가는 것 같아 말이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항상 수도 없이 항상 하죠.

참석자 6: 동양화학 통합 전

구술자: 전 일이죠.

면담자: 1980년 후반 1980년 후반. 그럼 자연스럽게 지부장으로 하시게 된 배경 이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술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자꾸 회사에서 자꾸 뭘 던지는 거지 저 조유형이는 인노협이야 인노협이야 막 이런 식으로
면담자: 인천
구술자: 예 노동조합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운동하면서 인노협은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활동을 인노협의 활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놈들이 그냥 조유형이는 빨갱이야 빨갱이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또 이게 성이 안 차고 한국노총은 어용들이 많아서 성이 안 차고 그래서 중간 조직인
면담자: 민노총은 없었어요?
구술자: 그때는 민주노총 없었죠. 예 그래서 중간 단계인 노동조합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노활추 거기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배가 염성태 선배 그때 다 그래서 이제 주안역 뒤에 보면 주안역 뒤에 보면 골목집이라고 하는 노동 사무국도 있고 골목집이라고는 단체에서 모임하고. 그래서 다 같이 거기서 이제 맨날 맨날 모여서 복시락복시락
면담자: 시국을 걱정하는 모임을 거기서 하죠. 거기가 아지트였어요.
구술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아직도 만나요. 아직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삼광유리에서 파업을 했는데 본조가 먼저 파업을 풀고 우리는 오래 했어요.
면담자: 지부가 더
구술자: 예. 본조가 먼저 파업 이제 같이 파업을 시작했는데 본조는 파업을 풀어. 저희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끝까지 갔죠. 여기서 파업 끝나자마자 이제 저하고 사무장 둘 해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순한 양들을 늑대에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자 6: 노조 협상안이 뭐였나요?
면담자: 뭐였었어요? 그렇게 해고를 당하게 된 그 배경이
구술자: 협상 안에 협상 안에는 해고된 내용은 없었어요.
면담자: 그럼 그 당시에 본조에서 먼저 풀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무장하고 그때 당시에는 지부장님하고
구술자: 공장에 불을 껐어요. 파업을 해서 공장 반을
면담자: 불을 꺼도 돼요?
구술자: 예. 예.
면담자: 용해로를 껐어요? 난리 났었겠네요.
구술자: 네 그렇죠 그렇죠 본조에서 더 난리 났지
면담자: 그럼 뉴스에 나왔겠네요. 그 용해로를 꺼
구술자: 그때 뉴스에도 나왔죠. 그 파업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해고된 거는 뉴스에 나왔죠. 신문에

면담자: 아니 그 용해로를 노조에서 끈 거죠.

구술자: 노조에서 끈 게 아니고 그냥 걔네들이 끈 거죠.

면담자: 아 회사에서

구술자: 어차피 지금 이 새끼들 저거 그냥

면담자: 아예 일을 못하게

구술자: 불 끄자 그냥 그렇게 해서 끈 거죠.

면담자: 그때 협상이 잘 안됐나

구술자: 왜냐 왜냐하면 아마 그것도 아마 전술적인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로는 7년에서 8년만에 한 번씩 노후 보수를 해요.

참석자 6: 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술자: 이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냥 이참에 한번 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은 그 해고 배경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구술자: 그래서 이제 아마 노활초 회원들이 한번 우리 회사를 방문 한 번 했죠. 회의를 한번 하러 이제 그래가지고 제3자 개입 금지 그때 당시에 제3자 개입

면담자: 회사로 들어올 수 없다

구술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냥 해고. 끝내고 나서.

면담자: 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설명을 들을게요.

그러시네요. 지부장으로 그러니까 일찍 추대된 이유 그 뒤에는 이미 준비가 다 되셨었네요. EYC 활동도 하시고

구술자: 그래서 제가 기흥에 가서 이제 대의원대회를 하러 이제 기흥을 갔는데

면담자: 선생님 급한 거면은 받으셔도 괜찮으세요(면담자한테 온 전화벨소리)

구술자: 제 거 아니에요

면담자: 이 친구 급한가보다 어떡하지

참석자 6: 문자 보내세요.

면담자: 그냥

구술자: 본 대의원 교육이 있어서 이제 버스 대절해서 이제 가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공식 행사를 하기 전에 노래 한 한두 곡씩 하잖아요. 한두 곡씩 하는데 이제 제가 나가서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노래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노래를 부르면서 구호를 이제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프로다 이거지

면담자: 이미 준비된 준비된 노조

구술자: 그냥 그냥 그냥 소인이 아닌데 저 선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교육부장을 맡았는데 교육부장을 3교대 사업장이라서

교육도 세 번을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면담자: 그렇죠 3교대니까
구술자: 그래서 교육을 뭐 시킬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를 이제 쭉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 없이 2시간을 했어요. 젊었을 때
면담자: 여러모로 다 준비가 되셨네요.
구술자: 그러니까 그냥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고 없이 2시간 동안 하니까 저 사람 저 뭐 하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석자 6: 요 주위 인물
구술자: 그렇죠 네네
면담자: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는 또 그러니까는 제가 다른 내용으로 좀 돌릴게요. 아니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그 당시 조합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며 그러니까 치열했던 노사 갈등 이런 거 있었나요?
구술자: 결국은 삼광유리는 아까 얘기한 노동 집약적인 회사이지만 봉급은 가장 낮았어요. 봉급은 가장 낮았어요. 왜 낮았냐면 면접을 볼 때 너희들은 3교대니까 야간도 야간에도 일할 때가 있고 일요일에도 일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수당 특근 수당을 대충 얼마 정도니까 너희들이 임금은 200만 원이야라고 하는 것들로 결정을 해요.
참석자 4: 근데 기본급이 낮아
구술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교대 사업장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교대를 하다가 갑자기 주관으로 발령이 나면 작지
면담자: 그렇죠
구술자: 예예. 그래서 그런 임금 구조 그러니까 임금이 맨날 타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밤에 일하고 일요일 날 출근하고 이래서 받은 금액의 토탈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그거를 구성을 쪼개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급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올리느냐가 가장 큰 과제예요. 그리고 보너스를 얼마큼 더 보너스를 얼마큼 더 올리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아마 600% 700%까지 만들고 정년을 1년 늘리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잘린 거죠. 그리고 이제 복직할 때는 만약에 혹시 해고 당했다가 복직할 때는 두 배를 받는다 이거까지
면담자: 그래서 결국에 기본급은 그거는 올리지 못하셨어요?
구술자: 기본급을 올리는 게 가장 관건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 복지 문제는 사실 이제 워낙 손을 댈 때가 많아서 댈 때가 많아서. 이제 뭐 그렇긴 한데. 가장 처음에 가장 문제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임금에 대한 금액 금액과 그리고 이제 기본급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많이 올리느냐

면담자: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으면

구술자: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본조하고 우리하고 이제 생각이 틀려 생각이 틀려요. 여기서 이제 본조는 회사 사람들하고 술도 잘 먹어요. 본조 위원장은 회사 상무나 부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서로의 애로사항도 서로 고민하고 그런데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싸움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금 협상하면은 우리는 내려와요. 그러면 걔네들은 회사 임원들하고 밥 먹어 술 먹고

참석자 4: 오히려 회사편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 본조 위원장하고 마음이 안 맞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구술자: 예 그래서 본조 위원장은 나중에 아마 한국노총 용인 지역 아마 거기 무슨 일을 꽤 오랫동안 했을 거예요. 이제 한국노총 거기서

면담자: 가장 중요한 거가 협상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변함이 없었나요?

구술자: 일단은 저희는 이 협상이 끝나면 협상 보고대회를 하죠. 3교대니까 세 번을 하죠. 3교대니까 그럼 본조는 안 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본조는 그런 거 잘 안 하지. 근데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나중에 싸움은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자본주의 세계니까 우리가 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죠.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니까

7. 해고와 복직, 그리고 퇴직(01:10:52~01:47:30)

면담자: 그래도 조합원들하고 여전히 그 관계는

구술자: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제가 해고되고 나서 3개월 동안 회사에 있었어요. 해고되고 나서 3개월 동안 동안 회사에 있었어요.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3개월 동안 거기서 그냥 자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좀 불편 조합원들한테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나갔어요. 나가서 유인물 만들어서 밖에서 이제 밖에서 한 달 동안 출근 투쟁을 했죠. 밖에서

면담자: 그러면은 그 해고 승소 법원에서 패소를 하신 거예요.

구술자: 처음에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거기를 신청을 했죠. 거기 신청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해고자 협의회에 가서 저희가 소장 다 우리가 우리가 써서 제출했죠. 다 제출하고 근데 어차피 노동위원회는 우리 편이 아닌 게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취하하고 회사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우리가 이 소를 취하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취하를 한다.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간 거죠.

면담자: 그럼 소송에서 마지막에 승소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복직이 됐고 원래는 원래는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이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양화학은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심은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오케이 인정 그렇게 된 거지

면담자: 그러면서 영업부로

구술자: 그래서 이제 이 복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항소를 안 했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복직을 왜 안 시키냐 이 부장을 만나서 근데 그때 아마 조금있다가 위원장 선거가 있으니까 다시 복직시키면 저것도 위원장은 또 나갈 거니까 저 골치 아프다

면담자: 그래서 서울 멀리.

구술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쇼당을 걸었죠. 그러면 몇 달 있다가 다시 본사로 보냈다가 위원장 선거 끝나면 공장으로 내려보내라 그러면 되지 뭘 걱정을 하냐. 그럴 수 있겠냐 이거까지 다 그럴 수 있어. 이게 이게 그것 때문에 복직 안 시켜주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콜 콜 그래 콜. 그게 아마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던 놈을 본사에다 앉혀놓으면 저거 분명히 한 3개월 있으면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 안에 다 하겠지 어때 조유형이가 본사로 온대 너희들 말 걸지 마. 아는 체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참석자 4: 됐어 됐어. 거꾸로 거꾸로 꽂으셔.(구술자 마이크 빠짐)

면담자: 아니 그게 위로

참석자 6: 그러면 동양화학 인수 전에 해고돼서 동양화학이 인수된 이후 복직을 하신 거네요.

구술자: 91년도에 위원장하고 92년도에 해고되고 93년도 그리고 94년도에 합병됐고 95년도에 복직한 거죠.

참석자 6: 본사로 보낸 거는

구술자: 예. 본사로 그래서 본사로 본사로 보냈어요.

면담자: 동양화학에서 합병하고 나서

구술자: 그래서 본사 가서 본사 갔으니까 저를 해고시킬 때 있었던 이사들이 아직도 그대로 다 있더라고. 내가 내가 오니까 막 커피도 타다 주고 그냥 왜 왜 그래 이거 이거 왜 그래 이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TQM[6] 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TQM 사무국

참석자 6: 다음은 TQM 사무국.

구술자: 예 TQM 사무국 동양화학에서 아마 꽤 오랫동안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

6)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전사적. 총체적 품질경영을 회사 전체에 추진하기 위해 만든 전담 조직.

그래서 그거를 각 자회사마다 다 TQM 활동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여튼 하여튼 뭔가 무슨 약자가 있는데 그래서 달랑 거기 이제 사무국장 한 명하고 여직원 하나 남자 둘 나 포함해서 남자 둘 그렇게 딱 달랑 4명 저 구석뎅이 사무실에서. 그래서 일단 뭐 앉으니까 딱 가서 이제 앉아 이제 일을 보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를 안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죠. 독학 독학에서 이제 윈도우 윈도우 그때 당시에 윈도우니까 그거 하고 이제 엑셀 엑셀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그래서 TQM사무국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동양화학 애들 주선으로 해서 일본도 한 버스 한 대 정도 인원으로 일본도 갔다 오고 그때 다른 회사 제휴 교류 이런 것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업부로. 그 사무국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영업부로 발령을 받은 거죠.
면담자: 동양학학에서 보낸 거구나. 제가 그 수순이 좀 이해가 돼요. 예전에 구술자 어느 구술자분한테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참석자 6: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면담자: 진짜 조용히 처리 잘 하는 회사인 것 같아.
구술자: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사무국에 4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 놀러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면담자: 격리죠.
참여자6: 무섭지
면담자: 그죠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거기는 거 귀양 간 거의 뭐 귀양 장소
구술자: 아니 하다못해 이렇게 하면 아니 옆에 있는 부서인데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명이 안 오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이상한 놈들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외출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짰죠. 외출 나갔다 오면 떡볶이를 사 온다.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한 봉지씩 떡볶이를 나눠준다. 그렇게 한 달이 있으니까 한 명씩 놀러 오더라고.
면담자: 난 이 에어컨이 너무 추워 이혜숙 선생님 좀 올려주고 나 가방 저 겉에 그거 있어요. 손수건. 겉에 뚜껑으로 해놓은 거 그것 좀 저한테 던져주세요. 선생님 혹시 잠깐 쉬셔도 괜찮으세요?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구술자: 아직은
면담자: 거의 다 맞춰가긴 하는데요. 잠깐 5분 쉬고
참석자 6: 5분 이거 끄고.
참석자 6: 그 사이에 아까 전화하신 분한테 전화 좀 해.
면담자: 이거 끄지 않아도 돼.

참석자 4: 그러면 월급 생각나세요? 월급 생각나세요?
구술자: 83년도 처음에 받았던 월급이 15만 원이요.
참석자 4: 그 600%면은 두 달에 한 번씩 100% 본
구술자: 나중에. 처음에는 400%. 400%인데 반은 식기로
참석자 6: 식기요? 그릇?
참석자 4: 물건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참석자 6: 그때 그런.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어.
참석자 4: 옛날에 그 위에서 무슨 강의할 때 저는 아버지가 그 노란색 봉투에 월급 받아 오신 걸 본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강의자님하고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 월급이 40 얼마를 기억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기별로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는. 그러니까 본 월급이 한 25만 원인가 24 몇만 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100%가 붙으니까 당연히 40만 원이 넘는 게 맞잖아요. 그 아버지가 기분 좋아 가지고 막 닭을 제가 닭을 엄청 좋아해요. 한 마리에 혼자 먹는 사람이거든요. 닭을 막 가족 수대로 튀겨 가지고 막 자전거 뒤에다 싣고 오시고 막 과일을 박스로 사 오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월급이 2배로 나왔으니까. 아버지 월급 그렇게 적지 않았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액수를 본 기억이 숫자가 기억 손으로 썼으니까. 근데 나중에 작년에 이제 인터뷰하셨던 분이 맞다고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월급이 그렇게 안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삼광유리 너무 작았네요.
구술자: 작죠
참여자4: 엄청 작아.
참석자 6: 삼광유리 잠깐 다니셨던 분 한 분 인터뷰를 그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노조 위원장은 아니지만 총무실 사무국장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이후에 나중에 90년대 말 이후 가면서 복지 임금 이게 좀 많이 상당히 높아져서 삼광유리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구술자: 합병 이후로 높아진 거예요. 네 네
참석자 4: 유리 직원이 700명이나 되면 작은 회사는 아닌데 진짜 월급이 작았다.
참석자 6: 1400인가 1200%라고 했던 거
구술자: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참석자 4: 오른 게? 그전에 하면 너무 작다. 생각보다 진짜 3교대 근무 자체가 되게 고역인 건데.
참석자 6: 홍규선 부사장님 아세요? 홍규선 동양화학 나중에 부사장을 하셨던 분
구술자: 많이 들어봤어요.
참석자 6: 그분이 아마 90년대 말 그때 아마 그런 것도 담당하는

구술자: 아마 삼광유리에서 공장장이 했던 양반이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마 윤치주 윤치주라는 양반이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합병되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동양화학에서 온 사람들 관리자가 있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 동양화학에서 관리자를 보내면 다 다 꼴통들이 와 다 꼴통들이

참석자 4: 여기 모를 거 아니에요? 여기의 일에 대해서

구술자: 모르죠. 이게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이상한 애들만 오니까

참석자 4: 일부러 그런 사람을 보내

구술자: 보내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괜히 그냥 이상한 애들만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삼광유리 사람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생겼어요. 본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사도 동양화학 사람들은 삼광유리 사람들을 다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다 문제가 있는 '너희들은 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그런 식의 취급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참석자 6: 그러니까 초기에 통합

구술자: 예 통합하고 나서 통합하고 나서 그래서 결론 그래서 결국은 기존 삼광유리 출신들이 다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참석자 4: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럼

구술자: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온 애들이 정서가 좀 이상해 애들이 좀 약간 사이코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공장은 더 심해. 더 심했죠. 공장은

면담자: 삼광유리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동양학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매출로 보나 클텐데.

구술자: 삼광유리가 동양화학의 매출 대비 기여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화학 자체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면담자: 그럼 계열사 중에서는 서열이 동양화학에서 보건데 어느 정도였었어요? 삼광이

구술자: 제일 제일 아래지

면담자: 그래요?

구술자: 예예예예 별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열사를 하면 이쪽에서 좀 뭘 보내면 이게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합병했다는 거에 대해서 왜 합병했지 그럴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삼광 중에서 동양화학 거를 쓰는 거는 소다회밖에 없는데 어차피 소다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아마 상광유리 사장 김소웅 사장이 동양화학 저 뭐야 누구하고 동기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씨 나 이제 유리에서 하기 싫어 그냥 니가 니가 우리 거 인수해' 이런 식의 것들이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참석자 6: 이회림 회장 이회림 회장님하고?
구술자: 이회림 회장 밑에 밑에 수영 이수영 밑에 이수영 밑에 이수영 이수영보다 밑에겠죠.
면담자: 원래 삼광 유리가 이복영 사장님이 맡았잖아요.
구술자: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삼광유리는 김소웅 사장밖에 없었어요. 김소웅 김소웅. 그게 나중에 이제 바뀌면서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삼광 유리 사장은 김소웅밖에 없어요.
면담자: 그럼 이어서 할까요?(5분 휴식하고 난 후 다시 시작)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노동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그거를 좀 아신다면, 그러니까 예전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하고 현재 노동자들의 그 협상 의제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구술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노동자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에 삼성 노조 초기업 노조 협상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에서 지금의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에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많이 죽었잖아요. 백혈병으로
면담자: 그렇죠 반도체에서
구술자: 사실 이제 지금의 노동조합에서는 이게 초과 세율이라든가 초과 이익이 생겼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해줘야 되거든. 이게. 예전에 돈도 잘 못 받고 좀 직업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이 제일 제일 또 많았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의 과정들이 없이 그 사람들이 이번에 생겼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쌓여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농성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면담자: 그러면 삼광에서 선생님이 이제 물러나시고 나서 후임으로 온 지부장 그 후에는 어땠어요? 지부 분위기가
구술자: 이제 그게 가장 저희가 도와줘서 위원장이 됐어요. 지부장이 됐어요. 저는 이제 밖에 있었고 제가 제가 사령탑으로 딱 해가지고 야 니가 도와주고 너 너 누구 만나고 얘 좀 도와줘 또 같은 부서였어요. 삼광유리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들은 다 똑같은 부서 1대 죽은 친구도 공무과 나도 공무과 그리고 내 후임도 공무과. 근데 왜냐하면 공무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용해로부터 전 라인의 공정을 다 관리를 하니까 제일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당선이 됐고 그래서 위원장 취임식 때 우리 초대 좀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엔 콜 초대하겠습니다. 그 좀 지나다가 초대 안 합니다. 못합니다.
면담자: 완전히 바뀌었군요.
구술자: 네 그래서 상황이 이 친구가 이 마음이 변했구나 그래서 뭐 마음이 변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는 거지 뭐. 그래서 계속 계속 위원장을 계속했죠. 그리고 싸움도 별로 안 하고 예 그냥 충실하게 회사하고 잘 사이 좋게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참석자 6: 인터뷰한 그분도 거의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싸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협상해서
면담자: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노조의 특색이 있겠네요. 그럼 현재도, 아까 삼성 노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노조의 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은 여전히 있으세요?
구술자: 관심은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면담자: 그래도 여전히 이제 채널은 그쪽으로 이제 돌려져있고
구술자: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는 일단 제가 저버려서 기대를 안 갖고 있으니까
면담자: 그럼 걱정되는 바 혹시 있으세요?
구술자: 걱정 돼도 대안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죠.
면담자: 그리고 또 워낙에 또 개인적으로 바쁘시잖아요.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구술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간에 지금 이제 현업에 더 충실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자: 한 시대에 또 열심히 또 활동하셨으니까. 제가 그 사전 면담할 때 굉장히 아련하게 기억에 남는 그 모습이 92년에 해고되시고 나서 95년 복직하는 그 사이에 회사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먹먹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뭉클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복직을 영업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영업부로 업무 변경을 하시면서 그 회사 내에 아까 좀 말씀은 좀 하셨는데 그 회사 내에 시선이 어땠으며 그다음에 선생님 심정은 어떠셨는지요?
구술자: 그러니까 느낌은 알죠.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죠. 저 조유형이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그만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는 뭐 그냥 그냥 편안하게 그냥 까불지 마 그냥
면담자: 아니면 선생님 혹시 일부러 막 버텨내셨어요? 너네들 내가 못 버틸 것 같지? 아니다
구술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컴퓨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에서 사무실이 강남이었어요.
구술자: 6시에 출근
면담자: 일부러
구술자: 예. 혼자 연습하는 거죠. 10시에 퇴근
면담자: 자판부터 연습하신거예요?

구술자: 예 예. 그거죠. 윈도우 윈도우 체계하고 엑셀하고 공부하고 파워포인트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6개월 했어요. 그렇게 6개월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하면 하는 거죠.

면담자: 그럼 영업부로 옮기면서 바로 그 거래처가 거래처를 맡게 되셨어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래도 다행히 편한 업체를 만나서

구술자: 다른 업체들 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면담자: 어느 상황이든 간에 선생님만의

구술자: 제 제 좌우명이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저희 좌우명입니다.

면담자: 거의 뭐 전천후로 멀티 플레이어로 사시는 거 같아요.

구술자: 항상 제 후배들한테도 지금도 그런 얘기 항상 해요.

면담자: 그런 강인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유전이세요? 아니면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야 된다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박정희 말기 때 우리가 싸우고 한 것도 무슨 논리가 이유가 없어도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나쁜 놈이니까 싸워야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 저는 여태까지 69년을 살아오면서 적군이 별로 없어요. 적군 적군은 딱 몇 명. 전두환, 윤석열 이런 애들 박정희 이런 애들 빼놓고는 적군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 나한테 피해를 안 주면 내가 굳이 적군을 만들 필요가 없죠. 대신 대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두 번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파악에 대한 매뉴얼은 저한테 있어요. 이분이 어떤 성향이고 내가 어떤지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대화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뉴얼이 다 돼요.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네 그래서 굳이 막 트러블 나게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같이 이야기하고 난 또 다른 일 또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몸이 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해고됐을 때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애도 이 친구랑 또 아주 친해. 아주 친해요. 근데 이 회사에 있는 친구가 얘한테 찾아가서 조유형이 복직 포기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포기하게 해달라. 근데 얘가 회사에 있는 애를 절연을 해요.

면담자: 네 그렇죠 절연해야죠. 그런 사람인데

구술자: 걔가 왜 그 친구가 그 회사 관리직한테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복직을 하는 이유는 복직을 하는 이유는 내 딸한테 아빠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복직을 하는 거거든요.

면담자: 하~~

구술자: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말이 필요 없는 거지 뭐 무조건 복직해야 된다는 거야.
면담자: 그러네요.
구술자: 예. 무조건 반드시
면담자: 예 예 그러네요.
구술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가장 절실한 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게 되면 하자 그런 그런 것들이에요.
면담자: 자식 얘기 나오니까 이게 반칙 반칙이시네. 이게 진짜 부모의 심정.
참여자4: 말이 쉽지
구술자: 힘들죠. 안 힘들겠어요
면담자: 아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자식을 놓고 보면 부모로서 못할
구술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해고 기간을 좀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했어요. 해고 기간 동안에 이제 비디오 가게 했어요.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를
면담자: 그러니까 2년 한 몇개월
구술자: 해고 기간은 3년이죠.
면담자: 92년부터
구술자: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6개월 만에 동네 비디오 가게 평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비디오 가게가 많았잖아요.
면담자: 네 맞아요.
구술자: 동네 비디오가게 다 평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웃기는 거는 옛날 지금 홍미영 구청장이 구의원 처음 나왔을 때 다른 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출마를 할 때. 십정동에서 어린이집 하고 저기 뭐야 다 오순부 선배 다 이번에 구의원 나온 사람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한번 일로 좀 와 봐. 그랬더니 가서 딱 갔더니 뭐 다 있는 거야. 이민우 선배 막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니가 이번에 좀 좀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요,뭐 하긴 하는데 여기선 못 이겨. 여기선 못 이기고 대신 내가 50대 50으로 해줄게. 50대 50으로 되겠냐 어차피 십정동에서 이길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밤만 되면 이제 술판을 벌이는 거야. 비디오 가게에서. 사각 지금 지금 없어졌어요. 사각 소주 있어요. 각 벽이 사각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날 병이 차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게 유인물 홍보물도 만들었어요. 그 술 한잔 먹고 야 돌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는 이제 이겼어요. 똔똔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누가 뭐 하다가 이제 뭐 다쳤어, 다치면 저한테 왔어요. 나한테 이제 저한테 오면은, 전화해서 '야 내가 누구 좀 보낼 테니까 한번 상담 좀 해줘 봐'. 그러면 보내고 이렇게 비디오 가게가 아니고 이제 동네에 떡볶이 다 된 거지. 그래서 동네에서 저는 내가 태어난 데가 부평 신촌이지만 신촌

사람들하고는 잘 안 어울렸어요. 다른 데서 밖에서 이제 단체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동네에서는 이제 회사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비디오 가게 하면서 이제 다 동네 사람들하고 다 이제 친하게 지내고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조유형이가 이런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6개월 6개월 동안은 비디오 가게를 새벽 2시까지 하고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 서울 우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해고자 둘이 현대 아파트에서 우유 배달을 했는데 한 애는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된 애는 파스퇴르 우유하고 나는 서울 우유하고 그래서 새벽에 같이 만나다가 한번 인사하고. 지금 그 친구가 아직도 이제 이번에 정년인가 진보당 임동수라고. 그 친구 그 친구가 지금 박인숙 신랑. 뭐 그런 식의 그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차피 싸움은, 싸움은 하는 건데 할 때까지 그냥 단호하게 심각한 얼굴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이기려면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장기전으로 보려면 그냥 항상 항상 심각하게 그냥 전투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저의 이제 지론이죠. 슬기롭게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참석자 6: 유연하게 유연하게

참석자4: 유연하 대처하신 것 같아요.

면담자: 그 누군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굉장히 혹독한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긍정으로 전환을 시키셔서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진짜 잘하시는

구술자: 집 나와서 방 없어. 그러면은 이제 동네 저기 뭐야 아는 애한테 전화해서 야 보증금 없으니까 방 하나 구해 봐. 그럼 이제 한 명 와서 이제 그냥 뭐 아직도 아직도 살고 있어요 곽경전이라고 아시려는지 모르겠네.

참여자6: 예 부평 풍물.

구술자: 예 예 예 그 친구를 제가 부른 거예요. 형 나 지금 집에 나왔는데. 그래서 알았어 여기 동네에 들어와 이리 와. 한 애한테 여자한테 야 너네 옆 방 하나 보증금 받지 말고 임마 월세만 받아. 알았어요 오빠. 그냥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살고 있어. 아직도.

참여자6: 그러신 관계였구나.

구술자: 네네네네. 그게 그때가 오래됐죠.

면담자: 또 한 풍물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구술자: 풍물은 지금은 이제 풍물을 안 해요.

면담자: 그거는 이제 좀 바로 이제 좀 후에 제가 여쭤볼게요. 퇴직 98년도에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IMF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퇴직하시게 된 그 이유가 배경이 IMF 영향이 있었나요?

구술자: 일단 영업부에서 한 명씩 저희가 영업이 세 팀이 있었는데 각 팀에서 한 명씩 빼자.

면담자: 그러니까 IMF 때문에 감축

구술자: 인원 감축.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영업 1팀에서는 제가 됐고 영업 2팀에 1명 영업 3팀에 한 명

면담자: 스스로 물러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구술자: 아니요. 회사에서 이제 이제 정리하는 거죠.

면담자: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구술자: 고맙다고 그랬어요.

면담자: 왜요?

구술자: 삼광유리가 저희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기를 바란 거죠. 저도 첫 직장에 대한 본래, 아까 제가 이제 해고 기간 동안에 삼광 버스를 보면은, 사실 이제 거기를 얼마나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동양화학 관리부장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다시 복직한 덴데 근데 이제 첫 직장에 대한 굴레를 벗어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옛날에는 다 그냥 전화로 통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별식 때 다른 사람들은 울었지만 나는 딱 단상에 올라가서 고맙습니다. 나한테 드디어 해방감을 줘서 이제 훨훨 좀 물론 이제 이것도 그냥 아무 저거 없이 싸우려면 싸울 수 있겠죠. 너희들 너희들이 인원 경제적인 적자로 인해서 해고를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자구 노력을 하지도 않고 일단 인원 감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싸우기도 싫고 많이 싸워봤으니까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제 나의 길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된 거죠.

면담자: 이제 본인은 본인 일이니까 이렇게 그 과정을 편치는 않겠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 해고 소식 들은 가족 반응은 어땠어요? 부인 특히

구술자: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그거죠 뭐

면담자: 그냥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갑자기 통보를 받는 거잖아요.

8. 새로운 삶 (01:47:31~02:19:15)

면담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이제 사시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지금 부평 그러니까 하신 지금 하시는 일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는 부평골 마을관리소협동조합

구술자: 마을관리소협동조합하고 청천동에 있는 맑은네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그 두 가 이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죠.

면담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 활동 중에 인상 깊게 받은 그 부분이 고독사 하시는 분 사후 정리 그다음에 유품 정리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목공 수업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고독사 하는 분하고 연결해서 신앙 공동체에서는 또 연령회[7]에 또 하셨었고 또

풍물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해고되시고 아니 퇴직하시고 나서는 뭐 맨 처음에 장사하셨었고 용접하는 일도 하셨었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가 드는 생각이, 어떤 개인적인 풍요나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개인적인 풍요나 그런 영화보다는 공동한테 유익한,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전에는 노동 운동도 그렇잖아요. 공동선을 위해서 이제 하신 활동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평생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활동을 관통하는 중요한 거가 인간을 중심에 두신 것 같아요. 인간을 존엄하는 인간 존엄 그런 거를 중심에 두고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그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살리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그렇게 사시게 되는

구술자: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에 사람만이 사람만 남는다는 얘기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걸 막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밤에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밤에 야간 밤에 일을 음식물 수거 일을 한 제가 한 15년 했어요.

면담자: 퇴직하시고 나서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구술자: 예 그거는 한 15년 했으니까, 이제 2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5년 했으니까. 사장은 우리 이제 손위 처남이 사장이고 우리 마누라 오빠가 사장이고 근데 이제 밤에 일을 하니까 낮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출근하고 나 혼자 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 혼자 놀 수 있는 게 그래서 옛날에 파업했을 때 제가 이제 풍물도 하고 그랬으니까 풍물을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풍물을 다시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의 파업하려고 풍물을 했던 거고 이제는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풍물을 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했죠.

면담자: 어떻게 어디에서

구술자: 처음에는 이제 잔치마당 가서 이제 학습도 받았고 부평은 풍물하기에 좋은 게

면담자: 유명해요. 부평 풍물이 오래됐고 굉장히 유명해요.

구술자: 각 동사무소마다 이제 풍물팀이 있으니까 근데 딱 한 군데가 오전에는 어차피 내가 못 가니까 오후에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계속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우리 성당의 풍물패도 또 하나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5년 전인가요? 레지오[8] 도입 50주년 행사가 있는데 또 아는 선배한테 풍물을 한번 했으면

---

7) 연령회(煉靈會): 천주교(가톨릭) 본당에서 세상을 떠난 교우(선종자)의 장례 절차를 돕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조직된 신심 봉사 단체.

8) 레지오는 '레지오(Legio)'에서 온 말로 군대 또는군단을 뜻하며, 천주교에서는 셩시놀 신앙 단체인 레지로마리에(Legio Marie)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단원들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이웃봉사, 냉담교우찾기, 선교 등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한다.

좋겠다, 꼬미시움에[9]서 그렇게 얘기가 와서 그럽시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뒤져보니까 4개 성당이 풍물패가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그래서 다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서 할 거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80명 만들었죠. 80명 연습은 지금 지금 제물포 역 뒤에 청운대학교 앞에

면담자: 네네.

구술자: 거기서 거기서 연습했고 그때 당시

면담자: 연합팀을 만드신거예요?

구술자: 카톨릭 연합 풍물패 그리고 이제 당일날은 이제 부천체육관 거기서 했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더군다나 성당은 신부님이 바뀌면 또 이게 신부님 성향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뭘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면담자: 뭔가 이루시네요.

구술자: 목공도 목공도 마찬가지고 목공도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제 후배 중에 목공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혼자서 혼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어차피 생각도 비슷하고 옛날에 노래패 했던 친구인데 생각도 좀 생각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동암중학교 동암중학교 목공 수업을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오케이 잘 됐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그 같이 하고 그런 거죠.

면담자: 방과 후 활동으로

구술자: 아니 아니 방과 후 말고

면담자: 그럼 수업

구술자: 아니아니 수업으로 목공 수업

면담자: 손재주도 좋으시네요

구술자: 그러니까 뭘 만들던 사람은 쇠에서 나무로 바뀌는 거니까 가능한. 근데 대신 이제 쇠는 이 나무는 좀 조심스러운 게 쇠는 잘라서 잘못 자르면 용접해서 붙이면 되는데 나무는 그게 안 되더라.

면담자: 한 번 잘라놓으면

구술자: 또 마침 또 그때 당시에 동암중학교 교장이 제 고등학교 동창 와이프였어요. 근데 그 친구 고등학교 동창은 이제 옛날 전에 일찍 죽었고 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두게 됐죠.

면담자: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구술자: 제가 한 3년 전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팀장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이런

9) 꼬미시움(Comitium)은 가톨릭 평신도 신심단체인 레지오마리에에서 여러 하위 평의회(꾸리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급 지역 평의회를 뜻한다. 소속된 직속 단체(쁘레시디움)를 직접 돌보는 동시에 하나 이상의 다른 하위 평의회(꾸리아)를 지도하고 감독함.

얘기는 농담 따먹기 막 하다가 저기 뭐야 우리 긴급 청소할 데가 하나 있는데 해줄 거예요? 그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쓰레기 집 같은. 어 해줄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 알아서 해줄게 해줄게. 그래서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내가 그냥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계속 나 혼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없으면 못하네.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면서 그럼 대안이 뭐야 이거를 조직을 만들면 되겠다. 이거를 조직을 만들면 내가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돼.
면담자: 마을관리소협동조합에서 그 일환으로
구술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인테리어는 어떻든 간에 업자가 들어가서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전구를 갈래도 못 갈잖아요. 수도 꼭지가 물이 새서 못 바꾸잖아요. 이제 가게 되면 대부분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게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8%예요. 1인 가구 비중이
면담자: 노인들
구술자: 노인들과 청년들 포함해서 포함해서 한 38%예요.
비중이 더군다나 부평이 지금 좀 더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이거를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가장 힘든 게 잘 안 모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 모인 놈들만 해서 6명 만들어서 그냥 해서 딱 만들고 예.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5년 전 5년 전 6년 전에 후배들이 공동 이용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주택관리소 소장이 좀 필요하다. 주택 관리소장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공구 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공구.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집에 가 뭐 하나 고치려고 공구를 살 수는 없는 거고 빌려주는 거 그게 부평에 7군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공구 한 200만 원 사다 놓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200만 원어치 공구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 그래서 제 집에 있는 공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공구를 빌려 이렇게 조금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공구를 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몰라 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문의 오면 쓸 줄 압니까? 써봤습니까? 물어봐서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마을 활동을 그러니까 마을 활동과 아까 얘기한 거는 마을 활동과 노동 운동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접목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대선에서 선거 때 우리가 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역 활동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리 노동 운동이고 도시 빈민이고 어떤 운동이든 간에

지역적으로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뭐든 때가 되면 그걸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관리소 소장을 하면서 월급은 34만 원 34만 원 그때 내가 내 본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7군데 마을주택 관리소 7군데를 다 불러서 다 와 와 와 불러서 이제 협의회를 만들었죠. 마을관리소 협의회를 만들고 고유번호증 내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건데 각자 틀리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람 몇몇 사람 이후에만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접었죠. 물론 아직도 이제 그걸 가지고 있긴 있는데 활동은 마을주택 관련 협의회 활동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래서 그러면 마을 관리소를 만들자 아까 얘기한 그 청소랑 같이 하면서 그 마을협동조합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일단은 사무실도 일단 내 사무실 비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낸다. 이제 유지는 어차피 이거는 일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 물론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10만 원 사무실 비용 내가 낸다. 기타 모든 것을 내가 낸다. 그리고 이제 장비는 어차피 우리가 기증 들어온 거 이름으로 다 처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쪽에 청천동에 있는 맑은네사회적협동조합은 안재환 선배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참여자6: 노조했던 분?

구술자: 예예예예예 그 선배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오히려 몸이 좀 안 좋아서 나보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대신 이제 조건이 하나 있다. 서류는 내가 못하니까 서류 할 놈은 해가지고. 그래서 또 한 놈 같이 요즘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거기 이사장도 제가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이번에 공영 장례도 저희가 준비하고 근데 공영장례에는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문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 조문단을 만든 이거 공공 조문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공공 조문단. 그래서 만약에 부고가 뜨면 가서 이제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연도도 드리고 그렇게 그런 식의 것들

참석자 6: 그거는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나요?

구술자: 어떤 거요?

면담자: 무연고

구술자: 무연고는 이제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80만 원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받으면 위탁을 받으면 한 160 나와요. 위탁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면담자: 그럼 그 장사 치르는 비용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그거는 그냥 인건비 그런 건가요? 160만원은

구술자: 그러니까 사실 160만원 만약에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160만 원 가지고 사실 많이

남지 않아
면담자: 입찰을 해요?
구술자: 그러니까 공영장례 만약에 이제 무연고 사망이 뜨면 이제 누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면담자: 그거를 입찰을 받아. 네 아무튼 좀 이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굉장히 강인하신 삶을 살아오신 건데 혹시 그 유리가 만드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흐물흐물 그 용해된 거에서 단단한 유리로 탄생하기까지 혹시 그런 이치를 혹시 깨달으셨나요? 유리 만드시면서
구술자: 아이고 저는 그냥 강인하다고 얘기까지 들을 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 건데
면담자: 개척 정신도 되게 크신 것 같고
구술자: 그리고 저는 제가 EYC에서 활동하다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2천년도에
면담자: EYC에 카톨릭도 다 들어가는 건데 종교 연합체잖아요.
구술자: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에큐메니카에서는 사실 카톨릭은 이게 연대고 협의회고 그전에는 안 들어와 있었죠. 안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카톨릭 얘기 생각하다가 잠깐 까먹었네.
면담자: 선생님 있잖아 이 배터리가 다 돼 가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10분 15분 정도는 더 마무리까지 하려면 혹시 신동재 선생님한테 이거로 괜찮겠냐고 한번 물어보실래요?(지원자에게 하는말)
참석자 4: 넘었어요. 선생님 지금 2시
면담자: 넘기는 했는데
참석자 6: 녹음은 2시간 안 됐어요.
면담자: 어 그렇죠 여기 녹음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거의 다 이제 맞춰가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같은 선택 같은 삶을 사시겠어요?
구술자: 안하겠죠. 뭐 내가. 군대만 안 가면 군대 안 가는 것만 하면
면담자: 군대는 남자들한테 진짜 그 군대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강하신데도 군대만큼은 진짜 다시 안 가고 싶은가 봐요.
구술자: 군대는 이제 생각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면담자: 아 그게 딱 질색이시구나. 모든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네.
지금 다 다 마쳤어요.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는지는 제가 좀 이제 알겠어요. 저희가 이제 기록에 남는 일이잖아요. 먼 훗날 100년 뒤에 이 후손들이 이 기록을 읽게 될 경우에 후손들한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구술자: 없을 것 같은데
참석자 4: 되게 치열하게 사셨다고 생각.
면담자: 네. 그 시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저희 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록하는 의미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술자로 아까 그 추천해 주신 분도 있기는 했었지만 이제 저희 직원이 팀장님한테 전화가 갔었잖아요. 구술자로 참여 부탁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구술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그 정도. 그 정도 예. 그리고 어차피 나 나만 했겠어? 다른 사람도 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더군다나 앎은 지 1~2년 된 후배도 아니고 한 40년 됐는데. 형이 좀 해야 돼. 알았어.
면담자: 그분이 하는 거면 무조건 예스
구술자: 아니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누구도
면담자: 네 네 거의 초긍정.
구술자: 네 네. 거기서 뭐 나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면담자: 귀한 얘기죠.
구술자: 아니 예전에 부평문화원에서 신촌 부평 신촌 삼릉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책자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죠.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술 먹으면서 해야지. 술 먹으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지 딱 이렇게 앉아서 자네하고 나하고 얘기 안아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얘기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삼릉 얘기할 때는 술집에서 만나.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그래도 그다음 주는 술집에서 먹자고 했어요.(서로 웃는다)
면담자: 오늘 장소가 마음에 안 드셨겠네(웃으며)
참석자 4: 2차 인터뷰를 술 드시면서
구술자: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이제 인터뷰가 아니고 이제 책자 만드는 건데 좋더라고
면담자: 그런대로 괜찮지 않으세요?
구술자: 좋아요. 좋아
면담자: 저희하고 하는거
구술자: 옛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삶이 다 똑같잖아요.
면담자: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참석자 4: 똑같지 않아요 들어본 바로는
구술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내 생각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이 제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어차피 방식에 대한 다양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제 후지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은 같잖아요.
이게 잘 살아야 되겠다 후지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것들

면담자: 그런 것 같아요. 내 삶하고는 달라도 적대시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 빼고
구술자: 그래서 저는 저는 저하고 아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 깡패도 있고
조폭도 있고 교수도 있고 약쟁이도 있고 약쟁이 약쟁이도 있고 그냥 대마초 피운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면담자: 그러면서 선생님의 삶을 이제 교화시키고
구술자: 그래서 교화할 놈들은 교화하는 거고
면담자: 알아서 받아들여
구술자: 하다 하다가 하다 그러면 야 너 이리 와 봐 너 너 너 성당 좀 나와.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 성당 데리고 가는 사람 한 5명 돼요. 이제 성당은 또 이거 먹어도 되니까
면담자: 그래서 그래서 개종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개종을 하셨군요.(크게 웃으며)
구술자: EYC 사람들한테 선배들한테 아주 개 욕을 먹는 게 저 새 저 새끼는 도대체
교회에서 성당을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당시에 3명. 3명이 개종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박상문 김경호 나.
면담자: 잘 나가다가 마지막 한마디가 영(웃으며) 네 선생님 제 질문은 여기 끝이고요.
이제 두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참석자 6: 불량품이 나오면 그 불량품 처리를 어떻게 하죠? 다시 녹여서 또 써요?
구술자: 그렇죠 다시 부수죠.
면담자: 유리니까
구술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유리병을 만들 때 병 기존 병을 한 10%를 넣어요.
그래야지 강도가 좀 생겨요. 그냥 유리만 가지고 순수한 유리만 가지고 저저저 모래만
가지고는 약해 약해서 안 돼서 일부러 일부러 넣어요.
면담자: 그럼 그 파유리 사 와요?
참석자 4: 아니 불량이 나오는 거
구술자: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제가 담배 필 때 담배꽁초를 병에다
버립니다.
참석자 6: 그러면 못 쓰죠. 다시 세척
구술자: 아니 왜냐하면 담배꽁초가 못 나와요. 그 안에서 뱅뱅 돌아서 필터가 왜냐하면
참석자 4: 이해했어요. 저는
구술자: 병을 세척 사람이 일일이 세척을 못하잖아요. 그 그러면 병이 이제 쭉 일렬로 서고
이제 쫙 누우면 고압으로 막 쏜다고 그 안에를. 고압으로. 그럼 필터가 뱅뱅 돌아서 안
나와요.

참석자 4: 맥주 먹었다가 한 번 꽁초 한 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구술자: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꽁초를 빼려면 이게 그걸 깨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꼬챙이로 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러 넣는 거예요. 병에다가 꽁초를. 어 이거 빨리 깨서 새로 만들어라 새로 재원을 마련해 만들어야 된다고
참석자 4: 그래서 한참 광고에 빈 병에다 버리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술집 가면 진짜 병 하나에다가 계속 꽁초 버리고 그런 적 많았었어.
구술자: 그렇죠 옛날에 또 술집에서도 담배 피웠으니까.
참석자 4: 예 근데 어느 순간 그거 하지 말라고 광고가 막 나왔던 거 기억나요?
참석자 6: 저 소성주 막걸리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성주에서도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그전에 병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삼광유리에서 혹시
구술자: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참석자 6: 어디서 만들었지
구술자: 그런 병 유리병을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자청 담는 병 같은 거 있잖아.
참석자 4: 큰 뚱뚱한 병
구술자: 예.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조그마한 조그마한 전기로 하나 놓고 그렇게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 대중적인 병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병들은 어차피 기계로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막병같이 그리고 그렇게 닿는 것들은 조그만 한 조그마한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참석자 4: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끝났다. 배터리가 좀 전에 한 칸 있었는데 지금 배터리 이거 없는 거잖아요.
면담자: 괜찮아요. 여기 녹음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참석자 6: 정리하죠. 근데 이거는 녹음이 안 돼도 상관없는데요.
혜숙 선생님 질문 있으신지.
참석자 4: 아니요. 저는 다 지나가서 괜찮아.
참석자 6: 기업체 이제 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 졸업했던 분들 위장 취업해서 노조 활동하다가 충돌이 생겨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다시 복직하기도 하는데 삼광유리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아요.
구술자: 삼광유리에는 이제 저랑 같이 해고된 친구가 지금 저 저 뭐야?
갈매기 꿈 갈매기 꿈
참석자 6:예. 예.
구술자: 예. 갈매기 꿈이 그 사장이 저랑 같이 해고됐어요.
참석자 6:자동차에 계신 분은 아니었나 대우자동차 대우노조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삼광유리에 계셨어요
구술자: 예예예. 이종우. 예. 예. 저랑 같이 해고됐어요.
지선이는 그 와이프 지선이는 해협에서 근무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협으로 갔는데 거기서 둘이서 연애한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에이
참석자 4: 일하다가 눈 맞고 그러고
구술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해고 복직 싸움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인하대 철학과를 1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이력서에 그걸 안 썼지. 이력서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담당했던 변호사가 최원식 변호사. 그 친구가 했는데 이거는 쪼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건과 종우 건이 틀리니까 물론 이제 명목상은 어찌 됐든 해고 처리했지만 복직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 그때 당시에는 사문서 위조로
참석자 6: 이종우 씨는 그렇게 사문서 위조로
구술자: 그때 당시에 또 사문서 위조는 거의 그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면 최원식 변호사가 이거 쪼갭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따로 하고 종우는 이제 하다가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예전에 인하대 뒤에서 막걸리 불집을 또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관교동에 있다가 이제 예 갈매기를 만든 거죠.
참석자 4: 갈매기 꿈 가게가 이름이 익숙한데 왜 익숙한지는 모르겠어.
구술자: 관교동 관교동
면담자: 지금도 하고 계세요?
구술자: 지금도 하죠.
참석자 6: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구나 인천집이구나.
구술자: 인천집은 바뀌었죠. 인천집 바뀌었지 인천집은 옛날에 또 동열이 형이 동열이 형이 제가 고등학교 1년 선배
참석자 6: 도둑질을 못해 나쁜 줄 모르는데
구술자: 아주 그 형이 산악회 동문 산악회장을 했거든요. 아주 그냥 2시간짜리를 5시간으로 꽈가지고 아주 그냥 개고생했어요.
면담자: 선생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술자: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지
면담자: 너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었던
참석자 4: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겠어요.